

점심 Q | 스타&와인



배용준



DRC 리쉬부르



장동건



알마비바



송혜교



모스카토 다스티



김수로



토카이

I Love Wine

■ 스타&와인, 어디서 마실까?

정우성·이정재 ‘와인바파’ 배용준·감우성 ‘마이홈파’

와인 애호가로 알려진 명사들은 과연 어디서 마실까. 와인 취향이 다르듯 즐겨 마시는 장소도 다양하게 이다.

우선 ‘오픈파’가 있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완전히 공개된 레스토랑이나 와인 바에서 와인을 즐기는 타입이다.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루포베네’나 이탈리아 와인 전문점 ‘비노비노’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대중의 시선을 꺼리거나 피하지 않는다. 와인을 마시는 순간만은 대중 속에 섞여 편하게 보낸다.

다음은 ‘오너셰프 애호파’다. 테이블 10개 미만의 소규모 오너셰프 레스토랑에서 주인이 내놓는 독창적이고 맛있는 음식에 와인을 곁들이는 타입이다. 이들 예전 와인이 음식과 함께 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희상 윤산그룹 회장 등이 이런 타입인 걸로 알려져 있다.

‘프라이버시파’도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셀러브리티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에서 와인을 즐긴다. 정우성 진 신세계 부회장은 남산 근처에 있는 한 멤버십 클럽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일부 연예인들도 이런 장소를 즐겨 찾는다. 집 밖에서 마시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이 발길을 끌어 모으는 이유다.

‘마이홈파’도 있다. 좋아하는 와인을 구매해 편하게 자신의 집에서 즐기는 타입이다. 배용준, 전광열, 감우성 등은 집에서 와인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따금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와인 파티도 벌인다.

■ 셀러브리티 와인 마케팅을 아십니까? “오바마 덕에 ‘덕혼’ 대박 났었죠”

‘셀러브리티 와인 마케팅’이란 게 있다. 말 그대로 와인을 셀러브리티와 연계해 판매하는 방법이다. ‘OO O이 좋아하는 와인 또는 마신 와인’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생기기 마련.

나라식품 신성호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일명 ‘오바마 와인’으로 불린 ‘덕혼’을 ‘셀러브리티 와인 마케팅’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덕혼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1월 대통령 취임식 오찬에서 축배주로 사용한 와인. 언론에 ‘오바마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 와인을 국내 수입·판매 중이던 나라식품은 같은 해 5월 웨스턴워커히호텔에서 ‘대통령의 만찬’이라는 타이틀로 취임식 오찬에 나온 똑같은 와인파 메뉴로 디너 행사를 열었다. 결과는 매진. 뿐만 아니라 백화점 VIP를 대상으로 시음회를 두 차례 진행했고 매장에서도 ‘오바마가 마신 와인’으로 홍보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추석 선물로 무려 600세트가 판매되는 ‘대박’을 터뜨렸다. 신 본부장은 “‘덕혼’처럼 20만원 가격대면 200세트가 평균 판매량인데 3배 이상 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셀러브리티와 연계시킨다고 반드시 잘 팔리는 건 아니다. 마틸린 먼로의 얼굴이 그려진 ‘마틸린 멀트’이 대표적. 2005년께 수입해 “레이블에 마틸린 먼로의 얼굴이 그려져 미국에서 출시하자마자 다 팔린 와인”이라고 마케팅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다. 셀러브리티 와인이라도 와인 자체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어필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스타는 어떤 와인을 즐길까?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셀러브리티의 와인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와인이 있다. 이견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좋아하는 ‘샤또 라푸르’다.

샤또 라푸르는 병당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프랑스 보르도 특등급 와인. 이견희 회장이 2007년 전경련 회장단 회의 후 만찬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라며 샤또 라푸르 1982년산을 내놓았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이견희 와인’으로 불리면서 유명해졌다. 이견희 회장은 어떤 와인을 마실까 궁금해 한 사람들이 대거 구매해 매장에서 이 고가의 와인이 동이 났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호주산 ‘카트닉 오디세이’를 즐겨 마신다. 구 회장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소량으로 한정 생산되는 와인. 같은 선상에 있는 카트닉 와이너리의 최상위 와인 오디세이는 최근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부사 페레 피스’를 애호한다. 지난해 9월 그가 지휘를 맡은 오페라 ‘카르멘’ VIP 리셉션에 ‘부사 페레 피스’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음악가가 안됐다면 요리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먹다 남은 와인으로 직접 식초를 만들었을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

연기자 지진희는 칠레 ‘몬테스 알파 M’의 매력에 빠져 와인에 입문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낸 와인 책 ‘이탈리아, 구름 속의 산책’에서 친구가 선물한 와인 ‘몬테스 알파 M’을 맛보고 처음으로 와인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고 털어놨다. 연기자 박상원도 몬테스의 팬이다. 차이점은 최상위 등급 ‘몬테스 알파 M’ 뿐 아니라 대중적인 ‘몬테스 클래식’까지 즐긴다는 것.

피아니스트 강종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미국 나파밸리의 ‘아리아에타’를 좋아한다. 아리아에타는 ‘작은 아리아’를 뜻하는 클래식 음악 용어로 클래식팬인 미국 와인 경매계의 최고 거장인 프릿츠 해튼이 설립한 와이너리. 강 교수는 베토벤 선율이 그려진 아리아에타의 국내 론칭 행사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승철은 ‘울프 블라스’와 ‘투헨즈’ 등 호주 와인을 좋아하고, 배용준은 ‘DR C’ 등 부르고뉴 와인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동건은 칠레산 ‘알마비바’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김수로는 헝가리산 ‘토카이’ 등 스위트 와인을 선호한다. 송혜교 역시 달콤한 이탈리아산 ‘모스카토 다스티’를 애용한다.

■ 해외 셀러브리티의 와인



조지 클루니

‘섹시 중년’ 조지 클루니, 그의 붉은 한 잔은?

해외 셀러브리티의 와인 사랑도 각별하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한 퍼스트 레이디로 꼽히는 재클린 케네디는 프랑스 4대 샤페인 제조사인 ‘니콜라 푸이얏트’의 제품을 즐겨 마셨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거품이 재클린을 떠올리게 한다면 푸이얏트 오너가 헌정을 했던 사연 덕분에 이 와인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는 미국 와인 ‘샤또 몬텔레나’의 팬이다. 2008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오찬주로 샤또 몬텔레나 2005년산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은 샤페인 ‘폴 로저’의 ‘광팬’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매일 2병씩 마신 걸로 유명하다. 나폴레옹은 샤페인 ‘자크송’을 좋아했고, 닉슨은 미국 스파클링 와인 ‘슈웬스버그’를 즐겼다. 그런가 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문호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프랑스 특급 와인 ‘샤또 마고’를 사랑했다. 오죽하면 나중에 모델로 유명해진 손녀 딸 이름도 마고로 지을 정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포르투갈의 ‘다우 포트’ 와인을 정말 좋아해 만찬 때마다 피날레 와인으로 내놓았다. 반면 며느리인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프랑스 와인 ‘크리오바타르 몽라세’를 자주 마셨다. 와인 사랑에 폭 빠진 해외 연예인도 많다. 오프라 윈프리는 러시아 알렉산더 2세 전용

샤페인으로 탄생한 ‘크리스탈’을 좋아하고, 조지 클루니는 이탈리아 와인 ‘까펠 보스코 마우리치오 자넬라’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

로버트 드니로는 이탈리아 와인 ‘듀칼레리제르바 오로’를 좋아해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하우스 와인으로 내놔고, 피어스 브로스넨은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 M’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대부’의 영화감독 프랜시스 F. 코폴라는 미국 나파밸리에 ‘니바움 코폴라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란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고, 가수 스티브,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와인을 좋아해 자신들의 와인 농장을 갖고 있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 이탈리아 와인 ‘까펠 보스코 마우리치오 자넬라’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최경아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섹스요가

메뚜기 자세 하루 4번 나도 ‘애플힙’

“‘애플힙’은 아무나 하나?”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의 의지 부재로 평퍼짐한 엉덩이가 될 수도 있고, 사과보다 더욱 탄스럼하게 변신할 수도 있다. ‘살인적인(?) 엉덩이’를 무기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싶지 않은가?

요가의 메뚜기 자세는 엉덩이의 중둔근 및 이상근을 강화시켜 힙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또한 내폐식근과 외폐식근이 강해져서 고관절 주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모양만 애플이고 처진 엉덩이는 가라! 탄력 있고 탭 탭한 엉덩이를 원한다면 옆드려서 하체를 뒤로 올려 주는 메뚜기 자세를 매일 수련하자.

※효과: 1. 메뚜기 자세는 엉덩이를 수축시키며 강하게 힘을 주게 되므로 탄력 있는 엉덩이를 만들고,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 2. 양발 사이에 볼을 끼우고 수련하면 발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양발로 볼을 누르면서 힘을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3. 비둘기 자세는 엉구리와 허벅지의 굳살을 제거하고 예쁜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 ※주의: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수련한다. 초급자는 4번까지만 해도 무방하다



1. 양발에 볼을 끼우고 엎드린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에 밀어 넣는다.



2. 숨을 들이마시며 양발을 높게 들어올린다. 이때 양발로 볼을 누르면서 엉덩이 힘을 준다.



3. 양발이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서 앉은 후 오른쪽 무릎 뒤에 볼을 놓는다.



4. 오른쪽 다리를 접어 볼을 누르고 팔꿈치 안쪽에 발등이 오도록 한다.



5.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시선은 왼쪽 45도 위를 바라본다.



최경아

명지대학교교수 | 국민생활요가협회회장 | MBC해설위원